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평화의 도구

(제 154 호)

06년 6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코)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형제회 합동 입회.서약식

오늘 6월 25일(일) OC 형제회, RH 성 글라라 형제회, WM 성 글라라 형제회, 토랜스 GB 쾰베 형제회, SD 성 디에고 형제회 합동으로 성 토마스 성당에서 입회및 서약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창재(다미아노) 신부님께서 미국에 오시어 미사 집전 해 주십니다. 다음은 입회 서약 예정자 명단입니다.

* 서약 (예정)자 [13명]:

김 외희(엘리사벳), 윤 상우(아그리빠나)
 홍 병숙(율리안나) -OC 3명-

기 복연(바오로), 기 옥순(루피나) -SD 2명-

오 상연(베로니카), 이 지화(요안나)
 이 화성(아네스), 임 복희(크리스티나)
 -RH 4명-

박 명자(막달레나) -WM 1명-

박 성관(아오스딩), 박 해희(수산나)
 이 건영(프란치스코) -GB 3명-

* 입회 (예정)자 [34명]:

강 승자(루시아), 김 광자(테레사)
 김 병실(소피아), 김 성희(테레사)
 김 춘옥(스텔라), 김 희수(레지나)
 마 수연(안나), 박 경옥(모니카)
 임 민웅(베드로), 최 화자(안젤라)

-OC 10명-

강 성호(도미니코), 강 윤환(마리아)

오 정은(율리안나) -SD 3명-

최 덕희(베로니카), 최 태환(아우구스티노)

-RH 2명-

김 준호(베드로), 김 인자(로마나)

방 주희(비비안나), 방 한웅(루까)

옥 정희(바울라), 이 근수(루까)

이 보리나(보리나), 이 병래(마리아)

이 상득(리노스), 오 전화(아나스타시아)

홍 병오(디모테오), 홍 언재(테레사)

-WM 12명

계 속

박 진의(로사리아), 신 경자(젼마)
 신 상일(사무엘), 안 희자(테레사)
 윤 명현(바오로), 조 경희(프란치스코)
 하 농옥(헬레나) -GB 7명-

■ 이종한(요한) 신부 방문

한국의 작은 형제회 초대 관구장 이셨던 이종한(요한) 신부님께서 오는 7/23일(일) 월례회날 저희 형제회에 방문하시어 만남의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그날은 정기 월례회 외에 신부님 강의 및 미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평소보다 늦게 끝날 예정입니다. 타 형제회에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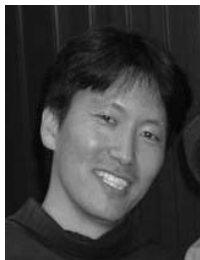
■ RH 성 글라라 형제회 설립식

지난 6월 4일(일) 로렌하잇 성 글라라 형제회가 성 마리아 한인 성당에서 지구 형제회, 각 한인 형제회, 월남 형제회가 참석한 가운데 설립식을 하였습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프란치스코 러시아 선교】

아..죽음의 재판을 받으신 이여!

김 용철(도미니코) 신부



(전호에서 계속)

미사가 끝나고 교리를 하고 나오자, 사복 경찰과 정복을 한 경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인가 다른 직감이 왔다. 그러나 이미 "잘 짜여진 덫"에 걸린 상태였다.

경찰의 신문은 시작되었고, 조서가 작성되었다. 처음 본 아이들 중에 2명의 아이의 부모 동의서가 없이 미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종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 부모나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한다는 종교법이 있다.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미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다른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어떤 이

유에서 인지(추정은 경찰이나 다른 누군가가 임의로 이곳으로 아이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이들은 길에서 한 남자가 미사가 시작되었으니, 성당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한다.)이 아이들은 처음보는 아이들이었고, 또한 이전에 만난적도 없는 아이들이었다. 그런 설명을 하였지만, 경찰의 모습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천천히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그렇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보다 더 하지 않았던가! 사랑하는 제자의 고발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의 사형 선고였는데...'

침착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미 누군가가 각본을 쓰고 있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깨달았다. 그러나 난 경찰이 쓴 조서에는 어떤 사인도 하지 않자, 또 다른 경찰 3명이 기다리거나 한 듯, 들어오더니 2명의 증인 자격으로 조서를 마무리 하고 성당을 떠나면서, 3월 28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조사 서만을 남겨두고 떠났다.

이 잔을 거부할 수 있다면..

한 장의 경찰 조서는 나를 혼란으로 빠트렸다. 그것은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의구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고, 의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모함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꾸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이...'

늘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범인이 다시 나타난다'는 명제는 진실이었다. 다음날 한 고려인이 찾아왔다. 이곳의 한 사람이 나를 만나자는 것이다.(이곳이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다른 것을 밝히지 않겠다.)

'혹시나?' 하는 의문점의 정답은 바로 '역시나'였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얼마 전에 한 고려인이 [현지의 모든 한국인 출신의 종교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공개

편지를 시청에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급기야 우수리스크 시청에서는 한국계 출신의 종교인 뿐만 아니라 현지의 모든 종교인들을 소집하여, 이 문제의 편지를 공개했고, 또한 시 의원들의 결의사항도 낭독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지의 고려인이라고 하는 같은 한국인이 한국 교회(그들은 이렇게 한국계 출신이 사목하는 모든 교회와 성당 및 법당을 한국 교회라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 법적으로 한국계 교회란 없다. 현지의 법인체를 가진 현지 교회이기 때문이다.)를 추방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당국은 뒤에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흔히들 유대인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유대인을 떨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업을 하거나 일하는 지역에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가 긴장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한국 사람들이 명석하고, 부지런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면, 서로 긴장하곤하는데, 얼마 있다가 같은 업종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안도의 긴 숨을 내뿜으며,

"이젠 되었다. 우리가 가만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당과 싸움이라고 일컫던 지난 역사의 한 면을 접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이 아닌, 러시아 땅에 와서도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현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이 자신들의 사업(비즈니스)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사목하는 교회를 추방해야 한다고, 러시아 시 정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

픈 일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뒷 배경을 알게 되었다. 날씨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난 이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다. 흔히 말하는 "왜 나 일까?"

이곳 저곳에 사건의 진위에 대해 자문을 얻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판에 나서야 할 지 물어보면서,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천만다행이었다. 역시 주위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에, 난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마시고 싶지 않았다. 물론 '이 잔을 받아야 한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동안의 행했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나'

알게 모르게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마시리라 생각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라고 위안을 하면서, 한 바탕 싱거운 놀이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원래 예정된 재판날이 되었다. 당일 몸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재판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법정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성당 일을 도와주시는 분을 재판 15분전에 법원으로 대신 보냈다.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그분의 상기된 얼굴을 보자,

'아차!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직감이 들며 내 목젢이 떨리더니 등이 움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임회 서약을 축하합니다



【묵 상】

인생은 등글게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기쁘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막막합니다.

이러면서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으면
"아!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의 한숨을 쉬겠지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어디를 향해 이렇게 바쁘게 갈까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결국, 나는 나, 우리 속의
특별한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다니는 것 입니다.

그 고통, 갈등, 불안,
허전함은 모두 나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참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나만의 특별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 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 고유의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찾으면 그 날부터 그 의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적이 순간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여 오래 입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불안하듯이,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데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아주 멋진 환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고
행복과 기쁨도 이때 찾아옵니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홀짝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다. 낡은 생각에서,
낡은 생활 습관에서 떨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눌러앉아서 세상 흐름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 빛깔도 없어지고 자기 삶도 없어진다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장단에 의해서 마치, 흐름에 의해서
삶에 표류 당하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자기답게 거듭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